

2021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I. 2021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II. 2021년 4분기 수출 전망

III. 수출기업 애로사항

작성

선임연구원 김윤지 (02-6252-3607)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요 약>

I. 2021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6.5%, 전기 대비로는 4.9% 증가

- 2021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01억 달러) 대비 26.5%, 전분기(1,568억 달러) 대비로는 4.9% 증가한 **1,645억 달러**
-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며 회복세를 지속했으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기록을 전 분기에 이어 다시 갱신
- 선박을 제외한 주력 14개 품목 모두 증가세 기록,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모두 증가세 지속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p 하락한 94 기록

- 수출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한 2020년 3분기 이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수출물량이 소폭 감소하고 생산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업황 평가 지수 하락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9				'20				'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88	94	93	94	70	69	98	97	104	99	94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1	95	93	92	80	77	97	96	97	96	95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100	101	98	100	97	101	100	111	116	118
생산원가 평가지수	110	109	108	106	106	103	106	109	127	133	132
수출물량 평가지수	86	96	93	95	68	68	100	100	108	103	98
수출계약 평가지수	87	95	92	96	68	68	99	101	108	103	98
자금사정 평가지수	95	96	95	98	83	83	97	97	101	97	96

- 수출물량은 기계류, 신재생에너지는 상승, 섬유류, 선박, 전기전자 등은 크게 하락했으며, 수출채산성은 기계류, 플랜트/해외건설, 선박은 상승, 이외 산업은 대부분 하락

산업별·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전기전자	기계류	철강/금속	석유화학	자동차	섬유	플랜트/해건	신재생에너지	선박	해운	대기업	중소기업
'21.2Q	103	94	103	96	94	101	102	96	111	123	113	98
'21.3Q	101	98	94	88	86	83	98	91	96	111	104	93



Ⅱ. 2021년 4분기 수출 전망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9.6p, 전기 대비 5.2p 상승

- '21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7.1로 전년동기 대비 19.6p 상승, 전기 대비로도 5.2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4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5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상승 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23.9	118.3	119.7	119.7	118.3	116.3	105.9	117.5	121.4	126.0	131.9	137.1
전년동기대비 증감(p)	6.4	△2.4	△2.7	△4.0	△5.6	△1.9	△13.7	△2.2	3.1	9.7	25.9	19.6
전기대비 증감(p)	0.2	△5.6	1.4	0.0	△1.4	△2.0	△10.4	11.5	3.9	4.6	5.9	5.2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신규 주문 증가세는 다소 완화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 상존, 중국은 철강 생산 차질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된 반면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성장세 강화, 브라질은 둔화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분기, 성장세 반영, 2010=100): 155.6('20.4Q)→158.8('21.1Q)→161.5(2Q)→**164.3(3Q)**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미국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분기 66.1로 전기 대비 0.3p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축소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3.1('20.3Q)→67.0(4Q)→64.6('21.1Q)→65.8(2Q)→**66.1(3Q)**
- **가격 경쟁력** :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가능성 부각,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비중 축소 등으로 달러 강세가 확대되면서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대비 3.2% 상승한 달러당 **1,157.4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88.5('20.3Q)→1,117.6(4Q)→1,114.1('21.1Q)→1,121.2(2Q)→**1,157.4(3Q)**



- **수출물가** :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해운 물류비용 상승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달러기준 수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90.5('20.3Q)→ 93.7('20.4Q)→ 99.8('21.1Q)→ 107.0('21.2Q)→ **110.3('21.3Q)**

- **D램** 가격은 반도체업체들의 증설 여파로 재고 비축량은 늘어난 반면, 스마트폰, 서버, PC 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완화돼 4분기에는 하락 전환될 전망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2.90('20.4Q)→3.05('21.1Q)→3.80('21.2Q)→3.96('21.3Q)→**3.75('21.4Q)**

- **주요 산업** : 경기회복 및 백신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물류 차질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 등으로 수출 증가폭은 다소 완화될 전망

- **반도체**는 D램 공급과잉 등으로 단가는 하락 전환하겠지만 4분기 계절적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 단 재고량 확대 및 IT 제조 공급망 차질 여파 등으로 성장세는 둔화

-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 지속 및 비대면 관련 수요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세 유지

2021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6~17% 증가 전망

- **수출선행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물가도** 상승하고 있지만, **기저효과 감소와 공급망 및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돼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6~17% 증가한 1,650억달러** 내외 전망

- 전년 3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 폭도 축소**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0.3Q) △3.4→(**4Q**) **4.2**→('21.1Q) 12.5→('21.2Q) 42.1→('21.3Q) 26.5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0.3Q) 1,301 → (**4Q**) **1,419**→('21.1Q) 1,464→('21.2Q) 1,568 →('21.3Q) 1,645

- 다만, 동절기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항만 물류 적체가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소비위축, 전력난에 따른 **중국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수출 증가율은 전망치 하회 가능

- **2021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300억 달러 상회** 전망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재료가격 상승'(44.0%), '높은 물류비용'(33.7%),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소비·투자 부진'(31.3%), '원화환율 불안정'(20.6%) 순으로 응답

- 원유, 철광석 등 가격 상승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45.7%→44.0%)** 응답률이 전 분기에 이어 최대 차지, 해운 물류난 영향으로 **'높은 물류비'(26.8%→33.7%)** 응답률도 6.9%p 증가

-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소비·투자 부진'(35.6%→31.3%)**은 전 분기에 비해 4.3%p 감소했으나,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19.5%→20.6%)** 응답률은 증가



I. 2021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1.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

3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6.5%, 전기 대비로는 4.9% 증가

- 2021년 3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1,301억 달러) 대비 26.5%, 전분기(1,568억 달러) 대비로는 4.9% 증가한 **1,645억 달러**
- 4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며 회복세를 지속했으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기록을 전 분기에 이어 다시 갱신
- 11개월 연속 증가 및 7개월 연속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9월(558억 달러)은 수출집계가 시작된 1956년 이후 월간 수출액으로는 최대치 기록
- 선박을 제외한 주력 14개 품목 모두 증가세 기록, 중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도 모두 증가세 지속

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

(단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액	1,327	1,385	1,347	1,364	1,302	1,103	1,301	1,419	1,464	1,568	1,645
증감률(%)	△8.5	△8.7	△12.3	△11.8	△1.9	△20.3	△3.4	4.2	12.5	42.1	26.5
수출물가지수	100.1	98.4	95.7	93.9	91.8	87.5	90.5	93.7	99.8	107.0	110.3
증감률(%)	△6.3	△8.2	△10.6	△9.6	△8.2	△11.0	△5.5	△0.3	8.7	22.3	21.9
수입물가지수	107.8	108.0	104.7	103.8	99.6	91.0	94.5	97.7	107.4	113.6	119.1
증감률(%)	△1.5	△4.5	△7.1	△5.7	△7.6	△15.6	△9.8	△5.9	7.9	24.8	26.1
수출물량지수	104.7	110.2	111.0	115.5	110.9	99.2	114.3	121.2	116.4	118.5	118.8*
증감률(%)	△2.5	△2.9	△2.9	△0.2	5.9	△10.0	3.0	4.9	5.0	19.5	3.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주: 수출입물가지수는 달러화 기준, 수출입물가지수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100,

* 3분기 수출물량지수는 7~8월 평균



경기회복으로 반도체·일반기계 호조세 지속,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석유화학 수요도 증가

- 반도체(36.4%)**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용 제품 주문 호조,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 D램가격(\$, DDR4_8Gb, 고정가격) : 3.10('20.3Q)→2.90(4Q)→3.05('21.1Q)→3.80(2Q)→**3.96(3Q)**
- 자동차(6.5%)**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은 지속되고 있으나 SUV, 전기차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호조세는 지속, 9월에는 추석 연휴로 인한 1주간 휴무로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소폭 감소
- 석유화학(63.8%)**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 수출단가 개선,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경기회복으로 인한 포장재, 합성수지, 합성고무 수요 증가로 9개월 연속 수출 증가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64.3('20.1)→ 20.4(4)→ 71.6('21.6)→ **72.9(7)→ 69.5(8)→ 72.6(9)**
- 일반기계(15.9%)**는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 중심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EU 등 선진국 및 인도·중남미 등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공작기계 수요가 증가해 수출 증가세 지속
- 무선통신기기(28.5%)**는 국내 신규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반응 호조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선박(△1.9%)**은 2018년 대비 2019년 수주량 감소에 따른 선박 인도 감소 등으로 수출 감소 전환
 ※ 조선 수주액(해양플랜트 포함, 억달러): 173.4('17)→ 270.1('18)→ 228.2('19)→ 192.7('20)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 1/4	2/4	3/4	4/4	'21. 1/4	2/4	3/4	7월	8월	9월
반도체	0.6	△3.0	6.9	18.7	14.0	29.7	36.4	39.6	43.0	28.2
석유화학	△13.3	△27.8	△16.4	△7.7	26.4	80.0	63.8	60.2	81.5	51.9
일반기계	△0.3	△18.7	△10.8	△5.2	△1.4	21.2	15.9	18.2	23.4	7.9
무선통신기기	△1.3	△22.6	△14.1	11.8	21.5	38.5	28.5	5.0	62.1	19.9
디스플레이	△20.7	△28.5	△17.7	17.8	16.3	36.1	25.2	38.0	23.7	17.3
자동차	△11.6	△41.5	1.7	1.1	31.5	74.8	6.5	12.3	16.9	△6.1
선박류	9.8	△30.4	△7.9	32.1	29.4	12.0	△1.9	9.3	38.1	△40.5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소비 증가, EU는 친환경차 중심 자동차 수출 호조

- **중국 수출(19.8%)**은 중추절(9월) 및 국경절(10월) 등 소비 성수기에 맞춘 부품 및 IT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 **미국(27.4%)**은 생산,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일반기계 수출 증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 수출도 상승세
- **EU(21.6%)**도 단가 높은 전기차 수출 비중 확대로 자동차 수출 증가세 지속,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철강제품 수출 단가 상승으로 철강 수출도 증가
- **아세안(26.4%)**은 경기회복 영향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이 증가하고,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단가가 개선되고 연료 소비도 함께 늘어나 수출 증가세 지속
- **일본(28.9%)**은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중국산 철강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산 철강 대체 수입이 늘고 일본 내 석유제품 수요도 증가해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구분	'20. 1/4	2/4	3/4	4/4	'21.1/4	2/4	3/4	7월	8월	9월
중국	△8.5	△4.5	2.6	△0.4	25.0	22.9	19.8	15.9	26.8	17.3
미국	5.5	△17.5	10.2	7.1	19.9	52.0	27.4	32.2	38.1	14.5
일본	0.1	△20.7	△16.5	△9.9	△4.9	33.0	28.9	28.3	43.7	17.2
아세안	3.7	△25.4	△9.7	6.2	△4.8	47.4	26.4	36.9	27.2	16.8
EU*	△9.1	△28.4	△7.7	9.6	30.9	56.4	21.6	43.7	41.4	15.6
베트남	3.0	△20.1	1.4	17.4	6.3	43.2	13.6	17.4	18.2	6.4
중동	△0.6	△22.6	△18.3	△24.7	△17.4	10.2	14.3	25.7	15.6	3.6
중남미	△18.7	△52.5	△26.6	0.4	4.5	84.1	45.0	40.5	73.2	26.6

자료: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EU는 영국 제외한 27개국 기준

경기회복,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 전년동기 대비 상승 지속

- 수출물가(달러화 기준)는 경기회복 및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1.9%**, 전기 대비로도 **3.1%** 상승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42.9(3Q)→ 44.6(4Q)→ 60.1('21.1Q)→ 67.1(2Q)→ **71.7(3Q)**

-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75.6%**, 전기 대비 **10.9%** 상승, 철강제품도 철광석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71.0%**, 전기 대비 **13.2%** 상승
- 수입물가(달러화 기준)도 원유와 철광석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66.9%**, **66.1%**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 전기 대비 **4.9%** 상승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가. 전체 수출업황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p 하락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p, 전기 대비 5p 하락한 94로 체감 수출업황 다소 위축
- 수출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한 2020년 3분기 이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수출물량이 소폭 감소하고 생산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업황 평가 지수 하락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단가 평가(118, 전기대비 2p↑) 상승세는 지속됐으나, 공급망 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원가(132, 전기대비 1p↓)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수출채산성은 전기 대비 1p 하락한 95로 평가
- (수출물량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2p, 전기 대비 5p 하락한 98 기록, 4분기 연속 100 이상을 유지하다 100 이하로 하락
- (수출계약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1p, 전기 대비 5p 하락한 98 기록
- (자금사정 평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1p, 전기 대비 1p 하락한 96 기록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분	'19				'20				'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88	94	93	94	70	69	98	97	104	99	94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1	95	93	92	80	77	97	96	97	96	95
수출단가 평가지수	99	100	101	98	100	97	101	100	111	116	118
생산원가 평가지수	110	109	108	106	106	103	106	109	127	133	132
수출물량 평가지수	86	96	93	95	68	68	100	100	108	103	98
수출계약 평가지수	87	95	92	96	68	68	99	101	108	103	98
자금사정 평가지수	95	96	95	98	83	83	97	97	101	97	96

주: <부록>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

나. 규모별 · 산업별 ·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

기업규모별 : 대기업·중소기업 수출업황 지수 각각 전기 대비 9p, 5p 하락

- 수출채산성은 대기업이 5p, 중소기업은 2p 하락하였고, 수출물량은 대기업은 15p, 중소기업은 5p 하락



산업별 : 기계류(94p→98p), 문화콘텐츠(95p→100p)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하락

- 수출채산성은 기계류, 플랜트/해외건설, 선박은 환율 상승 등으로 상승, 이외 산업은 대부분 하락
- 수출물량은 기계류, 신재생에너지는 상승, 석유류, 선박, 전기전자 등은 크게 하락

수출지역별 : 유로존(94p→97p), 일본(94p→94p)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하락

- 북미, 중국 등은 수출채산성, 수출물량이 모두 하락하며 업황도 전기대비 하락
- 유로존은 수출단가(117p→123p) 상승으로 수출채산성(89p→98p)이 상승하며 업황 개선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구분		수출업황 지수		수출채산성 지수		수출물량 지수	
		'21. 2/4	'21. 3/4	'21. 2/4	'21. 3/4	'21. 2/4	'21. 3/4
전 체		99	94	96	95	103	98
규모	대 기 업	113	104	106	101	117	102
	중 소 기 업	98	93	95	93	101	96
산업	전 기 전 자	103	101	102	99	111	98
	기 계 류	94	98	92	100	100	108
	철 강 / 비 철 금 속	103	94	105	101	106	102
	석 유 화 학	96	88	88	86	99	93
	자 동 차	94	86	88	84	92	85
	섬 유 류	101	83	96	88	107	88
	플 랜 트 / 해 외 건 설	102	98	93	98	100	102
	신 재 생 에 너 지	96	91	100	95	104	105
	선 박	111	96	107	109	115	100
	문 화 콘 텐 츠	95	100	100	90	100	85
	해 운	123	111	113	100	120	107
수출 지역	북 미	105	94	98	96	108	95
	중 국	103	98	101	99	107	98
	일 본	94	94	91	91	100	99
	유 로 존	94	97	89	98	99	98
	동 남 아	94	90	94	92	92	96
	중 남 미	93	91	100	84	104	100
	중 동	111	85	89	89	98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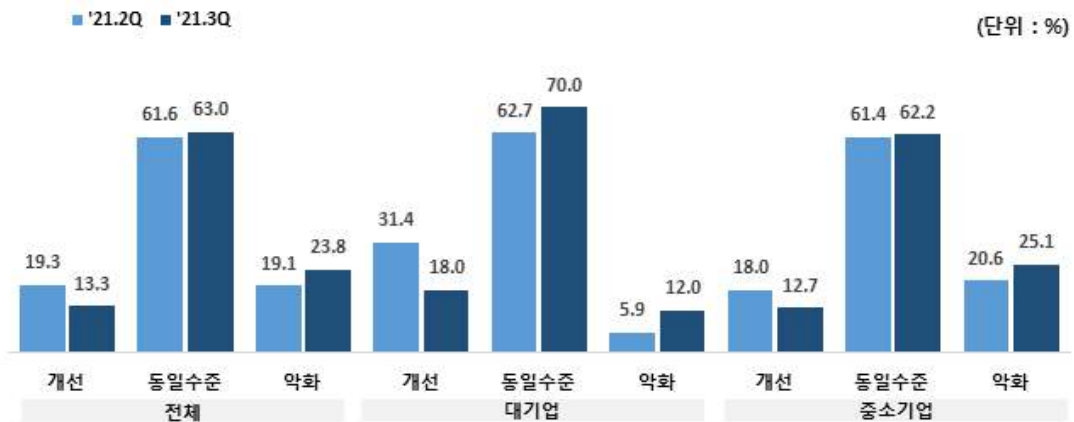
3.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

가.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응답 기업 505개사)

수출업황 '개선' 13.3%, '동일 수준' 63.0%, '악화' 23.8%로 개선세 유지하나 전기 대비 악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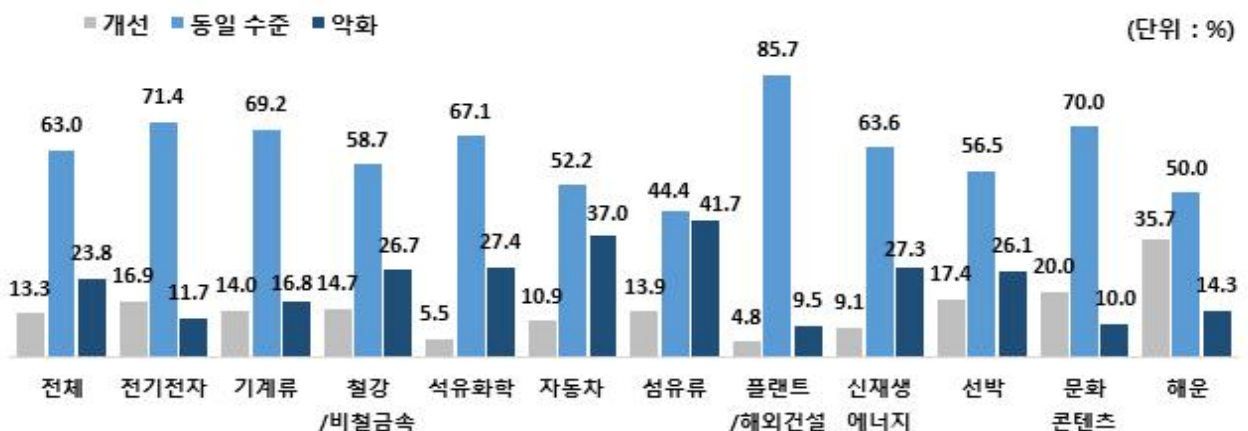
- 수출경기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황이 전기와 '동일수준'이라는 응답이 1.4%p 증가하고, 전기 대비 '개선' 응답은 6.0%p 감소, '악화' 응답은 4.7%p 증가해 전반적 업황은 전기와 유사한 가운데 악화 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전기 대비 '악화' 응답 비율이 대기업은 6.1%p 증가한 12.0%, 중소기업은 4.5%p 증가한 25.1%

3분기 수출업황 평가 : 기업규모별



- (산업별) 섬유류(24.3%→41.7%), 철강(12.0%→26.7%), 자동차(29.2%→37.0%) 등은 '악화' 응답이 전기 대비 증가

3분기 수출 업황 평가 : 산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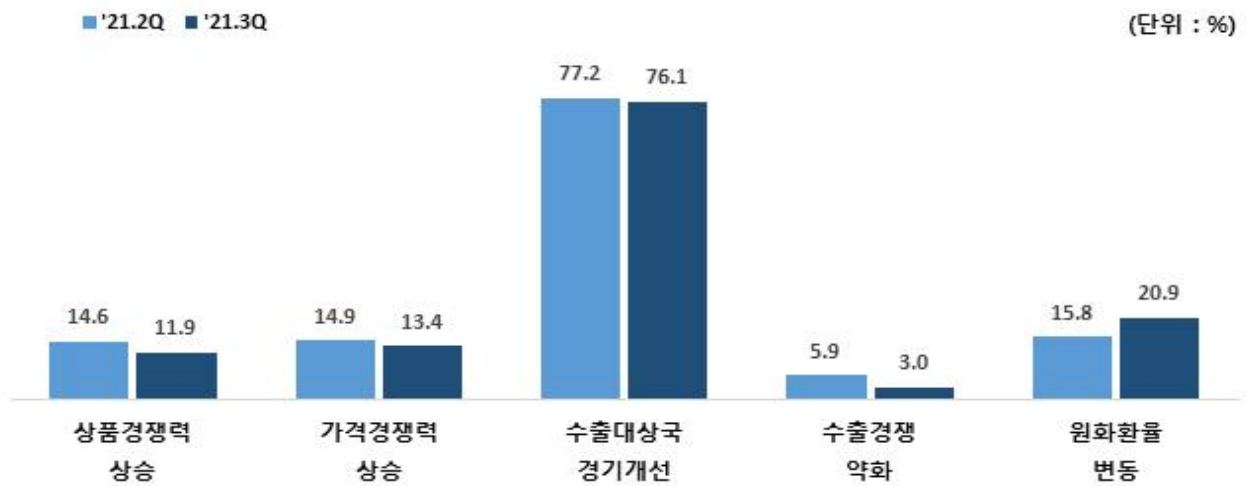


나. 수출업황 '개선' 원인 (전체 설문 기업 50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67개사, 복수응답)

'수출대상국 경기개선'(76.1%), '원화환율 변동'(20.9%) **최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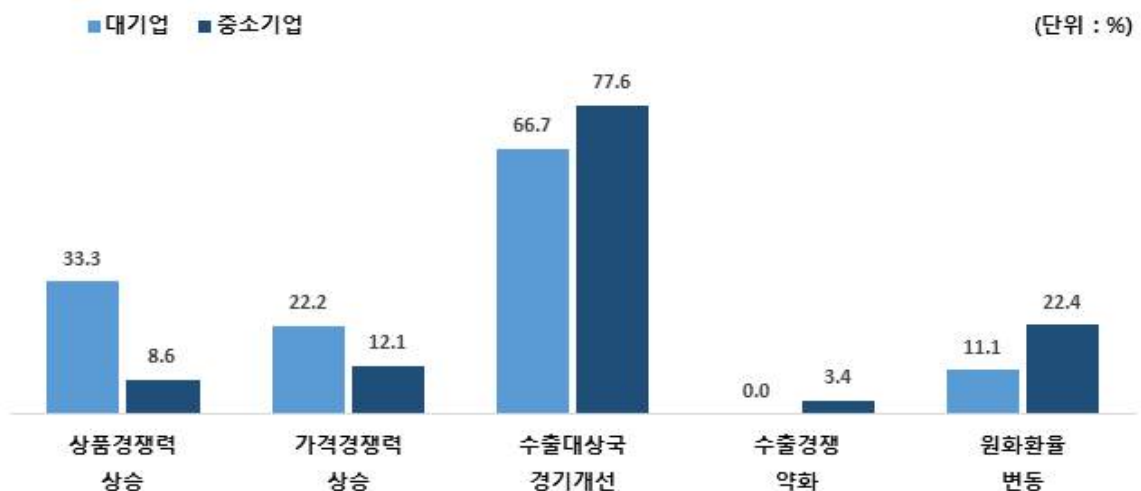
- '수출대상국 경기개선'(77.2%→76.1%)이 전 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원화환율 변동'(15.8%→20.9%) 응답도 증가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에서는 '원화환율 변동(16.5%→22.4%)' 응답이 증가, 대기업에서는 '상품경쟁력 상승(12.5%→33.3%)', '가격경쟁력 상승(6.3%→22.2%)' 응답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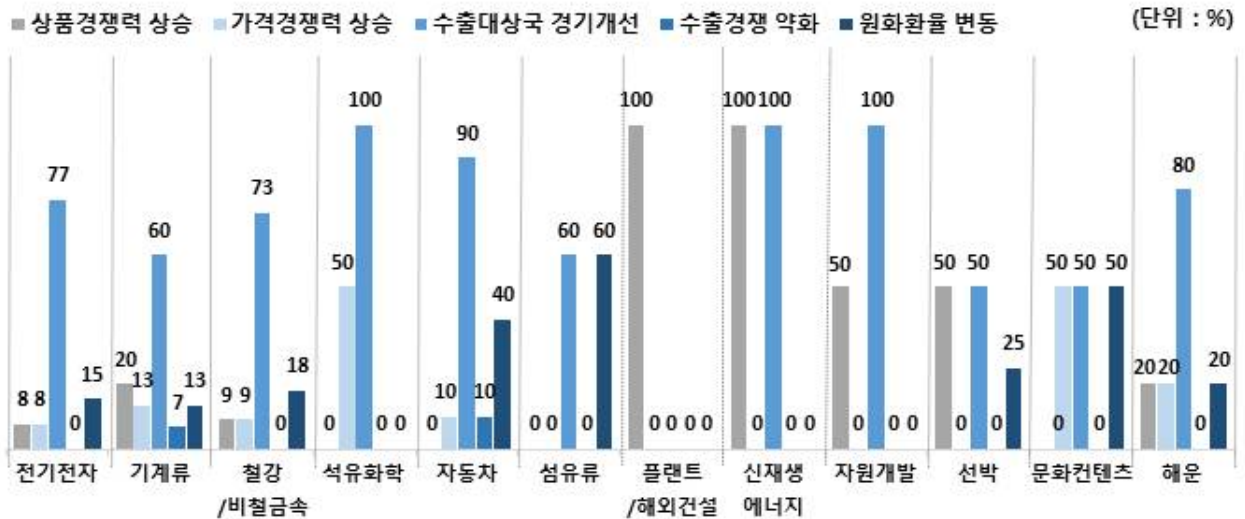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기업 규모별





- (산업별)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대상국 경기개선'을 업황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
- 플랜트/해외건설(100%), 신재생에너지(100%)는 '상품경쟁력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 자동차(40%), 석유류(60%) 등은 '원화환율 변동' 응답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음.
- '가격경쟁력 상승'은 석유화학(50%), 문화콘텐츠(50%)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

3분기 수출업황 '개선' 원인 : 산업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원인

(단위 : %)

구분		상품경쟁력 상 승	가격경쟁력 상 승	수출대상국 경기 개선	수출 경쟁 약 화	원화 환율 변 동	계 절 적 요 인
전 체		11.9	13.4	76.1	3.0	20.9	1.5
규모	대 기 업	33.3	22.2	66.7	0.0	11.1	0.0
	중 소 기 업	8.6	12.1	77.6	3.4	22.4	1.7
산업	전 기 전 자	7.7	7.7	76.9	0.0	15.4	0.0
	기 계 류	20.0	13.3	60.0	6.7	13.3	6.7
	철 강 / 비 철	9.1	9.1	72.7	0.0	18.2	0.0
	석 유 화 학	0.0	50.0	100.0	0.0	0.0	0.0
	자 동 차	0.0	10.0	90.0	10.0	40.0	0.0
	섬 유 류	0.0	0.0	60.0	0.0	60.0	0.0
	플랜트/해건	100.0	0.0	0.0	0.0	0.0	0.0
	신재생에너지	100.0	0.0	100.0	0.0	0.0	0.0
	선 박	50.0	0.0	50.0	0.0	25.0	0.0
	문화콘텐츠	0.0	50.0	50.0	0.0	50.0	0.0
해 운	20.0	20.0	80.0	0.0	20.0	0.0	
수출 지역	북 미	8.7	4.3	82.6	4.3	17.4	4.3
	중 국	14.3	28.6	85.7	0.0	0.0	0.0
	일 본	0.0	14.3	85.7	0.0	14.3	0.0
	유 로 존	12.5	0.0	62.5	0.0	37.5	0.0
	동 남 아	25.0	25.0	50.0	0.0	37.5	0.0
	중 남 미	33.3	33.3	66.7	0.0	33.3	0.0
	중 동	0.0	0.0	66.7	33.3	33.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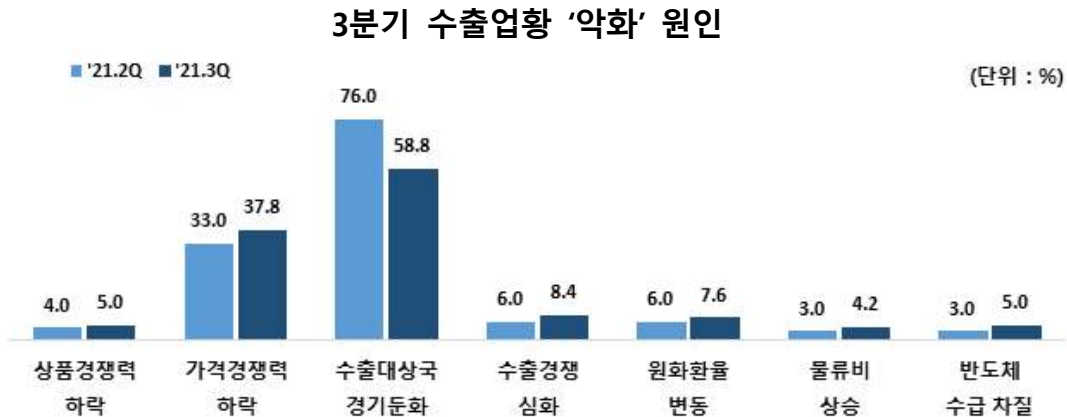
주 : 전체 설문 505개사 중 '개선' 응답 기업 67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다. 수출업황 '악화' 원인 (전체 설문 505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9개사,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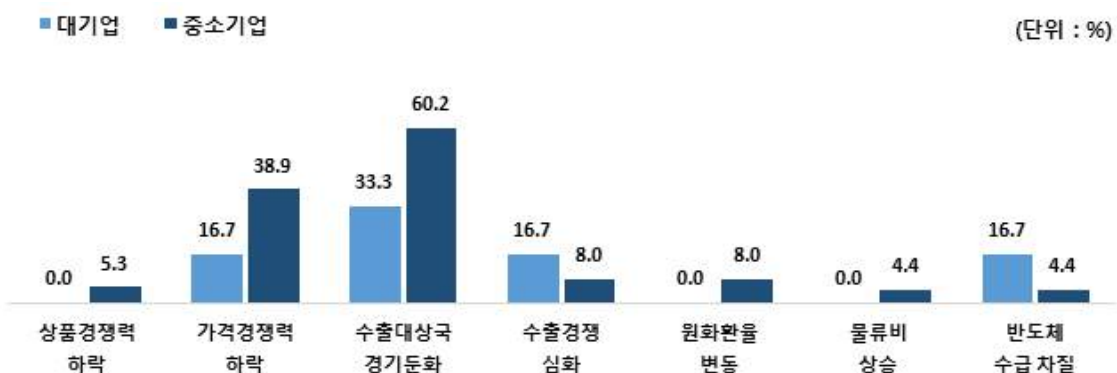
'수출대상국 경기둔화'(58.8%), '가격경쟁력 하락'(37.8%) 최다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76.0%→58.8%)'가 비중은 감소했지만 전 분기에 이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가격경쟁력 하락(33.0%→37.8%)', '수출경쟁 심화(6.0%→8.4%)' 순으로 응답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국이 중국(86.7%→62.5%), 동남아(90.0%→68.2%), 중동(0.0%→87.5%)인 기업에서 높게 응답
- 최근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반도체 수급 차질' 응답도 5.0%(자동차 산업 응답기업에서는 17.6%), 물류난 영향으로 '물류비 상승' 응답도 4.2%로 전기 대비 증가



- (규모별) 대기업(33.3%), 중소기업(60.2%) 모두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선택
- '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응답은 대기업(66.7%→33.3%), 중소기업(76.3%→60.2%) 모두 비중 감소, '가격경쟁력 하락' 응답은 대기업(33.3%→16.7%)은 하락, 중소기업(33.3%→38.9%)은 증가
- '물류비 상승'은 중소기업(4.4%)만 응답, '반도체 수급 차질'은 대기업 응답 비중 16.7%, 중소기업 4.4%로 대기업에서 비중 증가

3분기 수출업황 '악화' 원인 : 기업규모별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원인

(단위 : %)

구분		상 경 하	품 력 락	가 경 하	격 력 락	수 대 경 돈	출 국 기 화	수 경 심	출 쟁 화	원 환 변	화 율 동	관 세 인 상 보 호 무 역	물 류 비 승	반 도 체 급 질
전 체		5.0		37.8		58.8		8.4		7.6		1.7	4.2	5.0
규 모	대 기 업	0.0		16.7		33.3		16.7		0.0		16.7	0.0	16.7
	중 소 기 업	5.3		38.9		60.2		8.0		8.0		0.9	4.4	4.4
산 업	전 기 전 자	11.1		22.2		66.7		0.0		11.1		11.1	0.0	0.0
	기 계 류	5.9		35.3		64.7		11.8		5.9		0.0	5.9	0.0
	철 강 / 비 철	0.0		55.0		45.0		10.0		15.0		0.0	5.0	0.0
	석 유 화 학	5.0		55.0		55.0		10.0		15.0		0.0	5.0	5.0
	자 동 차	5.9		29.4		52.9		2.9		2.9		2.9	0.0	17.6
	섬 유 류	0.0		20.0		86.7		0.0		0.0		0.0	6.7	0.0
	플랜트/해건	50.0		50.0		0.0		0.0		0.0		0.0	50.0	0.0
	신재생에너지	0.0		0.0		66.7		33.3		0.0		0.0	0.0	0.0
	선 박	0.0		33.3		50.0		33.3		33.3		0.0	0.0	0.0
	문화콘텐츠	0.0		0.0		100.0		100.0		0.0		0.0	0.0	0.0
	해 운	0.0		50.0		50.0		0.0		0.0		0.0	50.0	0.0
수출 지역	북 미	7.9		31.6		52.6		2.6		2.6		0.0	5.3	10.5
	중 국	6.3		50.0		62.5		6.3		12.5		0.0	6.3	0.0
	일 본	10.0		50.0		40.0		10.0		0.0		0.0	10.0	10.0
	유 로 존	0.0		50.0		50.0		8.3		25.0		0.0	0.0	0.0
	동 남 아	0.0		27.3		68.2		22.7		9.1		0.0	4.5	0.0
	중 남 미	0.0		14.3		57.1		0.0		14.3		14.3	0.0	14.3
	중 동	12.5		50.0		87.5		0.0		0.0		0.0	0.0	0.0

주 : 전체 설문 505개사 중 '악화' 응답 기업 119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II. 2021년 4분기 수출 전망

1. 수출선행지수 추이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9.6p, 전기 대비 5.2p 상승

- '21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37.1로 전년동기 대비 19.6p 상승, 전기 대비로도 5.2p 상승
- 수출선행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4분기 연속, 전기 대비로도 5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으나, 상승 폭이 축소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
-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대상국 경기, 수출용 수입액, 제조업 신규주문 등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수출 선행지수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23.9	118.3	119.7	119.7	118.3	116.3	105.9	117.5	121.4	126.0	131.9	137.1
전년동기대비 증감(p)	6.4	△2.4	△2.7	△4.0	△5.6	△1.9	△13.7	△2.2	3.1	9.7	25.9	19.6
전기대비 증감(p)	0.2	△5.6	1.4	0.0	△1.4	△2.0	△10.4	11.5	3.9	4.6	5.9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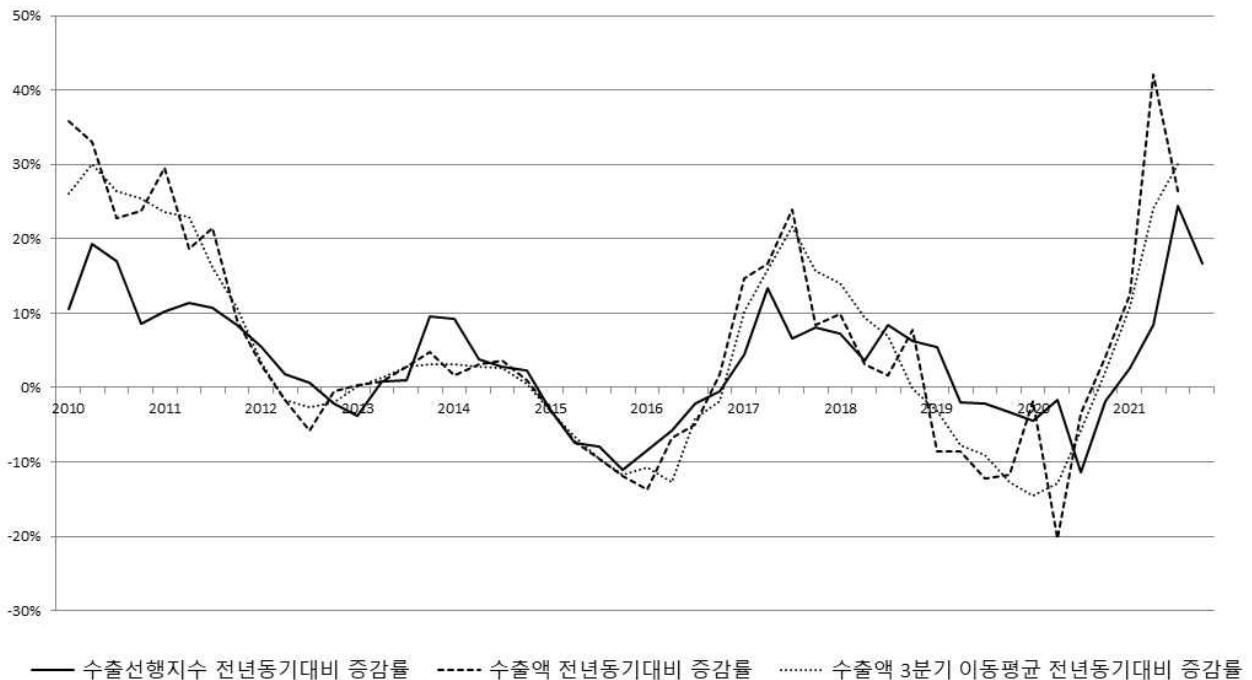
주 :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





수출물가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 지속, 신규 주문 증가세는 다소 완화

- **수출대상국 경기** :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 상존, 중국은 철강 생산 차질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된 반면 러시아는 유가 상승으로 성장세 강화, 브라질은 둔화세 지속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분기, 성장세 반영, 2010=100) : 155.6('20.4Q)→158.8('21.1Q)→161.5(2Q)→**164.3(3Q)**

※ 수출대상국 경기지수(월) : 137.1('20.4)→158.0('21.1)→162.7(6)→**163.4(7)→164.1(8)→165.8(9)**

- **WTO 상품무역지수** : 코로나19 이후 무역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항공화물량, 컨테이너 해운, 원자재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확장세를 보여 상품무역지수는 110.4로 상승했으나, 구성요소 중 신규수출주문은 둔화 추세로 전환돼 무역 확장세는 3분기에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

※ **Goods Trade Barometer***(WTO) : 84.5('20.3Q)→100.7(4Q)→103.9('21.1Q)→109.7(2Q)→**110.4(3Q)**

* 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 하회하면 감소세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미국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3분기 66.1로 전기 대비 0.3p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축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수출액 대비 3~6개월의 선행성을 나타냄.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분기) : 63.1('20.3Q)→67.0(4Q)→64.6('21.1Q)→65.8(2Q)→**66.1(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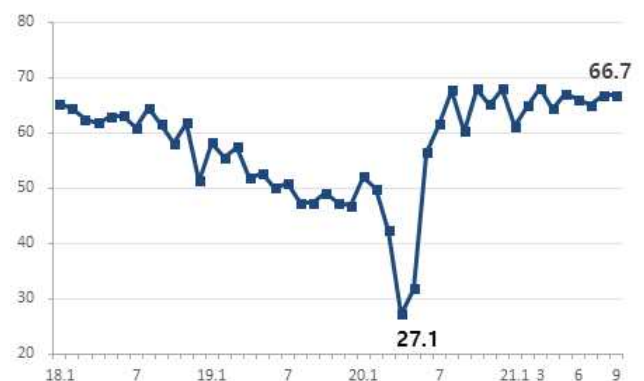
※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월) : 52.0('20.1)→27.1(4)→61.1('21.1)→67.0(5)→**64.9(7)→66.7(8)→66.7(9)**

수출 대상국 경기지수



자료 : OECD 선행지수 활용 자체 산출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



자료 :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 증가,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5분기 연속 전기 대비 상승, 전년동기 대비로도 2분기 연속 상승하며 2014년 4분기(116.5) 이후 최고치인 117.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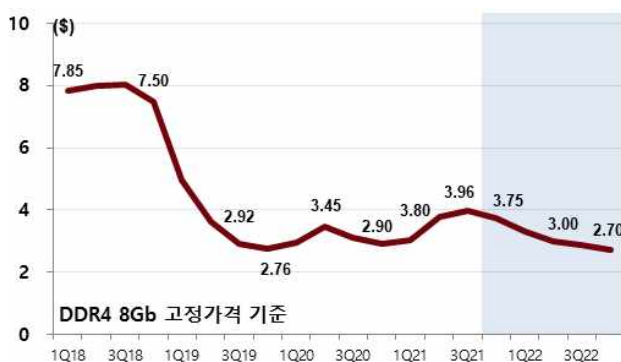
※ 수출용 수입액지수(분기, 2010=100): 72.0('20.3Q)→76.7(4Q)→90.5('21.1Q)→103.7(2Q)→**117.0(3Q)**

※ 수출용 수입액지수(월): 86.2('21.1)→100.8(3)→103.6(6)→**117.6(7)→117.5(8)→117.5(9)**



- 가격 경쟁력** :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시행 가능성 부각,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비중 축소 등으로 달러 강세가 확대되면서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전기대비 **3.2% 상승**한 달러 당 **1,157.4원** 기록,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은 상승
 - 원화 가치는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미 국채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 및 테이퍼링 임박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할 전망
 - ※ 원/달러환율(분기평균) : 1,188.5('20.3Q)→1,117.6(4Q)→1,114.1('21.1Q)→1,121.2(2Q)→**1,157.4(3Q)**
 - ※ 원/달러환율(월 평균) : 1,097.5('21.1)→ 1,1131.0(3)→ 1,121.3(6)→ **1,144.0(7)→ 1,160.3(8)→ 1,169.5(9)**
- 수출물가** :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및 해운 물류비용 상승 지속 등의 영향으로 달러기준 수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 수출물가 (2015=100, 달러기준) : 90.5('20.3Q)→ 93.7(4Q)→ 99.8('21.1Q)→ 107.0(2Q)→ **110.3(3Q)**
 - ※ 수출물가 증감률(% , 전년동기 대비, 달러기준) : △5.5('20.3Q)→△0.3(4Q)→8.7('21.1Q)→22.3(2Q)→**21.9(3Q)**
- D램** 가격은 반도체업체들의 증설 여파로 재고 비축량은 늘어난 반면, 스마트폰, 서버, PC 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완화돼 4분기에는 하락 전환될 전망
 - ※ D램 가격 (\$, DDR4_8Gb 고정가격, Omdia) : 2.90('20.4Q)→3.05('21.1Q)→3.80(2Q)→3.96(3Q)→**3.75'(4Q)**
- 유가**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멕시코만 원유생산시설 복구 지연, 나이지리아와 카자흐스탄 원유생산 차질 등이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및 백신접종 확대로 항공유 수요도 회복되면서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전망
 - ※ 유가(Dubai, \$/bl, 기간평균) : 54.8('21.1)→64.4(3)→71.6(6)→**72.9(7)→ 69.5(8)→ 72.6(9)**

D램 가격 전망



자료 : Omdia

유가 추이



자료 : Petronet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가격)



- **주요 산업** : 경기회복 및 백신접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류** 등 주요 품목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물류 차질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 등으로 수출 증가폭은 다소 완화될 전망
- **반도체**는 D램 공급과잉 등으로 단가는 하락 전환하겠지만 4분기 계절적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 단 재고량 확대 및 IT 제조 공급망 차질 여파 등으로 성장세는 둔화
-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 지속 및 비대면 관련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세 유지

2021년 4분기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16~17% 증가 전망

- **수출선행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물가도 상승**하고 있지만, **기저효과 감소와 공급망 및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는 다소 완화돼 **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6~17% 증가한 1,650억달러** 내외 전망
- 전년 3분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위축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의 전년동기 대비 상승 폭도 축소**

※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 전년동기대비) : ('20.3Q) △3.4→**(4Q) 4.2**→('21.1Q) 12.5→(2Q) 42.1→(3Q) 26.5

※ 분기별 수출액 (억달러) : ('20.3Q) 1,301 →**(4Q) 1,419**→('21.1Q) 1,464→(2Q) 1,568 →(3Q) 1,645

- 다만, 동절기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항만 물류 적체가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소비위축, 전력난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수출 증가율은 전망치 하회 가능
- **2021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6,300억 달러 상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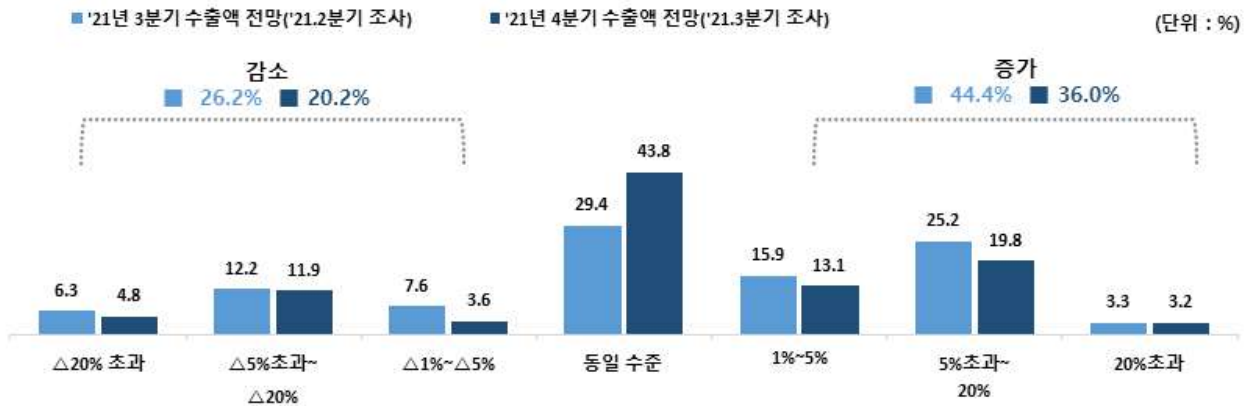


2. 수출기업의 '21년 4분기 수출액 전망 (응답 기업 505개사)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 전망 36.0%, '동일 수준' 전망 43.8% 등 4분기 연속 증가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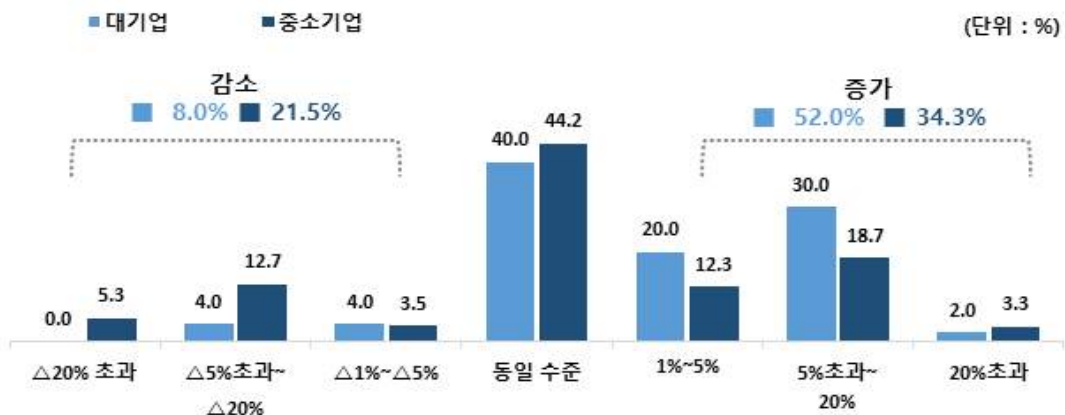
- 전년동기와 '동일 수준'(43.8%) 전망이 전기 대비 14.4%p 증가하며 가장 비중이 큰 가운데, '증가'(36.0%) 전망이 '감소'(20.2%) 전망보다 높아 수출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수출액 '증가' 전망 응답률(44.4%→36.0%)은 전기 대비 8.4%p 감소해 3분기 대비 수출 증가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

'21년 4분기 수출액 전망 (전년동기 대비)



- (규모별) 대기업(52.0%)과 중소기업(34.3%) 모두 '증가' 응답이 우세하나, 대기업의 '증가' 전망 응답률이 중소기업보다 17.7%p 높고, '감소' 전망 응답률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3.5%p 낮아 대기업의 수출 전망이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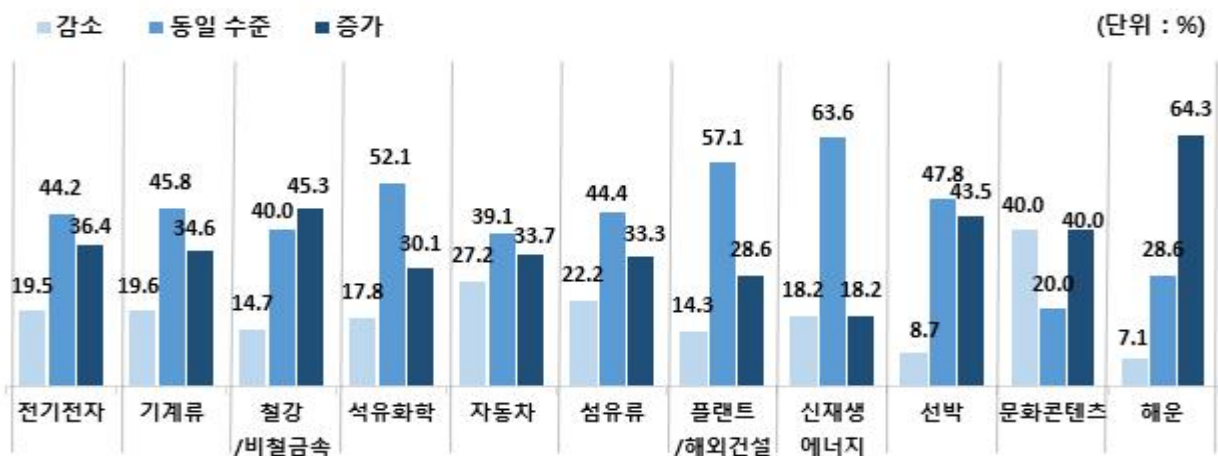
'21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기업규모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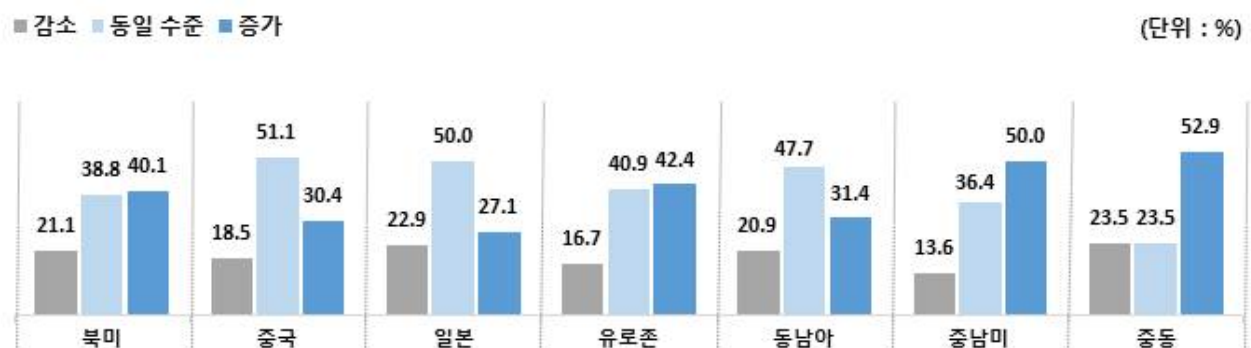
- (산업별) 해운(64.3%), 철강/비철금속(45.3%), 문화콘텐츠(40.0%)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 전망 우세, 그 외 산업은 '동일 수준' 전망 응답 비율 우세
- '동일 수준' 다음으로 '증가' 응답 비율이 높은 산업 가운데에서는 선박(43.5%), 전기전자(36.4%)의 '증가' 응답률이 높음.
- 전년동기 대비 '감소' 전망 응답비율은 문화콘텐츠(40.0%), 자동차(27.2%), 섬유류(2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21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산업별 (전년동기 대비)



- (수출 지역별) 북미(40.1%), 유로존(42.4%), 중남미(50.0%), 중동(52.9%)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 전망 우세, 그 외 지역은 '동일 수준' 응답 비율 우세
- '증가' 응답 비율은 중동(9.5%p ↑), 동남아(3.5%p ↑)에서는 상승했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감소해 전반적인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

'21년 4분기 수출액 전망 : 수출 지역별 (전년동기 대비)





'21년 4분기 수출액 증감률 전망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분		△20 % 초과	△5%초과 ~ △20%	△1% ~ △5%	동일 수준	1% ~ 5%	5% 초과 ~ 20%	20% 초과
전 체		4.8	11.9	3.6	43.8	13.1	19.8	3.2
규 모	대 기 업	0.0	4.0	4.0	40.0	20.0	30.0	2.0
	중 소 기 업	5.3	12.7	3.5	44.2	12.3	18.7	3.3
산 업	전 기 전 자	3.9	10.4	5.2	44.2	15.6	18.2	2.6
	기 계 류	7.5	8.4	3.7	45.8	8.4	24.3	1.9
	철강/비철금속	4.0	6.7	4.0	40.0	18.7	20.0	6.7
	석 유 화 학	1.4	11.0	5.5	52.1	15.1	13.7	1.4
	자 동 차	4.3	19.6	3.3	39.1	14.1	18.5	1.1
	섬 유 류	5.6	16.7	0.0	44.4	8.3	19.4	5.6
	플 란 트 / 해 건	0.0	14.3	0.0	57.1	9.5	19.0	0.0
	신 재 생 에 너 지	9.1	9.1	0.0	63.6	0.0	9.1	9.1
	선 박	4.3	4.3	0.0	47.8	13.0	26.1	4.3
	문 화 콘 텐 츠	10.0	20.0	10.0	20.0	10.0	30.0	0.0
	해 운	7.1	0.0	0.0	28.6	14.3	35.7	14.3
수출 지역	북 미	2.0	16.4	2.6	38.8	14.5	25.0	0.7
	중 국	4.3	9.8	4.3	51.1	12.0	13.0	5.4
	일 본	6.3	6.3	10.4	50.0	8.3	16.7	2.1
	유 로 존	3.0	10.6	3.0	40.9	15.2	21.2	6.1
	동 남 아	8.1	10.5	2.3	47.7	10.5	18.6	2.3
	중 남 미	9.1	4.5	0.0	36.4	9.1	27.3	13.6
	중 동	5.9	17.6	0.0	23.5	35.3	17.6	0.0

주 : 총 505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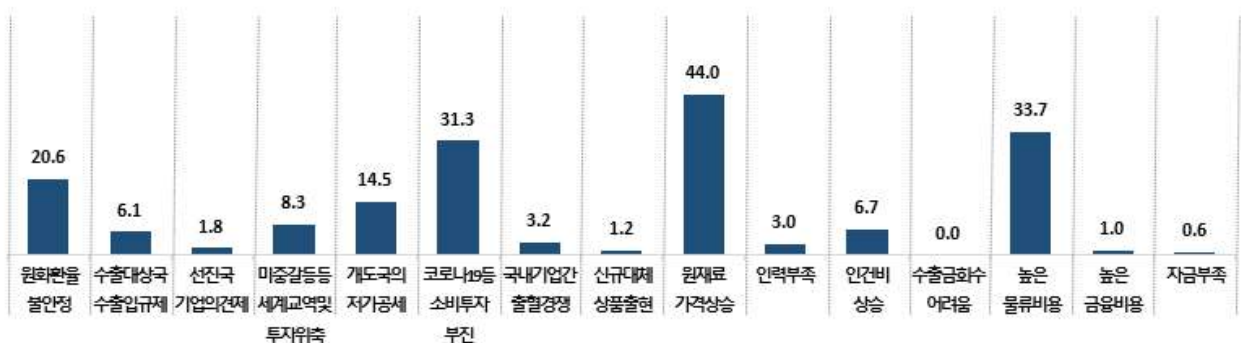
Ⅲ. 수출기업 애로사항

‘원재료가격 상승’(44.0%), ‘높은 물류비용’(33.7%),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소비·투자 부진’(31.3%), ‘원화환율 불안정’(20.6%) 순으로 응답

- 원유, 철광석 등 가격 상승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45.7%→44.0%)** 응답률이 전 분기에 이어 최대 차지, 해운 물류난 영향으로 **‘높은 물류비’(26.8%→33.7%)** 응답률도 6.9%p 증가
-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소비·투자 부진’(35.6%→31.3%)**은 전 분기에 비해 4.3%p 감소했으나,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으로 **‘원화환율 불안정’(19.5%→20.6%)** 응답률은 증가

‘21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응답 기업 수 505, 1순위+2순위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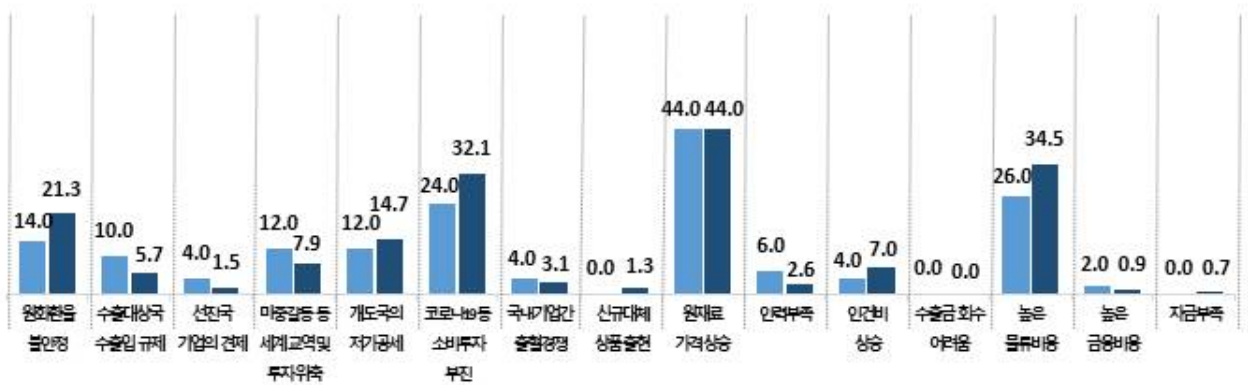
- (산업별) **‘원재료가격 상승’** 응답률은 **신재생에너지(54.5%), 기계류(51.4%), 전기전자(48.1%), 철강/비철금속(46.7%), 자동차(46.7%)** 업종에서 높게 응답
- **‘높은 물류비’** 응답률은 해운 운송 비중이 높은 **섬유(58.3%), 석유화학(46.6%), 철강/비철금속(37.3%)**에서 높았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수출대상국 소비·투자 부진’** 응답률은 **문화콘텐츠(50.0%), 섬유류(44.4%), 전기전자(37.7%)** 등에서 높음.
- (규모별) **대기업(44.0%)**과 **중소기업(44.0%)** 모두 **‘원재료가격 상승’**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대기업의 응답 비율(35.3%→44.0%)**이 더 크게 증가
- **‘높은 물류비용’** 응답률은 **대기업(27.5%→26.0%)**은 소폭 감소했으나 **중소기업(26.7%→34.5%)**은 7.8%p 증가해 최근 해운 물류난이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년 3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 기업규모별

(응답 기업 수 505, 1순위+2순위 복수응답)

■ 대기업 ■ 중소기업





기업규모별 · 산업별 ·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

(단위 : %)

구분		원화환율 불안정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 (고관세)	선진국 기업의 견제	무역갈등 여파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투자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높은 물류비
전 체		20.6	6.1	1.8	8.3	14.5	31.3	44.0	33.7
규모	대 기 업	14.0	10.0	4.0	12.0	12.0	24.0	44.0	26.0
	중 소 기 업	21.3	5.7	1.5	7.9	14.7	32.1	44.0	34.5
산업	전 기 전 자	20.8	1.3	0.0	10.4	16.9	37.7	48.1	26.0
	기 계 류	20.6	3.7	1.9	4.7	18.7	33.6	51.4	29.0
	철 강 / 비 철	29.3	12.0	2.7	10.7	14.7	14.7	46.7	37.3
	석 유 화 학	27.4	6.8	1.4	5.5	12.3	30.1	41.1	46.6
	자 동 차	15.2	6.5	2.2	10.9	9.8	31.5	46.7	33.7
	섬 유 류	27.8	0.0	2.8	5.6	5.6	44.4	19.4	58.3
	플랜트/해건	4.8	9.5	0.0	14.3	14.3	33.3	38.1	19.0
	신재생에너지	0.0	9.1	0.0	0.0	18.2	36.4	54.5	27.3
	선 박	8.7	8.7	4.3	13.0	21.7	30.4	43.5	30.4
	문화콘텐츠	10.0	0.0	0.0	0.0	20.0	50.0	0.0	0.0
해 운	28.6	28.6	7.1	7.1	0.0	21.4	28.6	28.6	
수출 지역	북 미	17.8	4.6	2.0	5.3	17.1	29.6	44.7	40.1
	중 국	26.1	7.6	1.1	17.4	16.3	28.3	32.6	31.5
	일 본	16.7	4.2	0.0	8.3	14.6	33.3	56.3	20.8
	유 로 존	22.7	9.1	3.0	6.1	1.5	24.2	54.5	40.9
	동 남 아	18.6	7.0	2.3	5.8	14.0	43.0	39.5	29.1
	중 남 미	27.3	4.5	0.0	4.5	9.1	27.3	50.0	22.7
	중 동	35.3	5.9	5.9	11.8	35.3	17.6	47.1	23.5

주 : 총 505개사 <복수응답: 1순위+2순위>



<부록>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 업종별로 조사하여,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대상 기간
 - 업황 평가 : 조사 직전 분기
 - 실적 전망 : 조사 해당 분기
- 조사 실시 기간 : 2021년 10월 5일~8일
- 모집단 및 표본
 - 모집단 :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 표본크기 : 대중소기업 505개 업체 (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5개)
- 조사 방법 : 전화 및 이메일

2.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증가·상승), 개선(증가·상승), 비슷, 악화(감소·하락), 매우 악화(감소·하락)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

- 지수 산출 방식 :

$$\frac{(\text{매우개선} \times 1.0 + \text{약간개선} \times 0.5 + 0 \times \text{동일} - \text{약간악화} \times 0.5 - \text{매우악화} \times 1.0)}{\text{전체 응답자수}} \times 100 + 100$$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대한 평가	
	수출단가	평가지수	수출단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생산원가	평가지수	생산원가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평가
수출물량	평가지수	수출물량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수출계약	평가지수	수출계약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평가	
자금사정	평가지수	자금사정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평가	

3.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
- 2010년=100 기준으로 산출되며, 2018년 1분기부터는 ISM제조업 신규주문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등을 변수로 추가하는 등 추정 모형 소폭 개정
- * 미국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매월 400여개 제조업체 대상으로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 등의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

지수 모형 구성 내용

구분	변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중국, 인도, 브라질 등 • 외화획득용 일반수입액 • ISM 제조업 신규주문 지수
수출가격 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실효환율
산업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 선박 : 해외수요 선박수주액 • 기계 : 해외수요 기계수주액